

미우치아 프라다 (Miuccia Prada Bianchi)

1949년 5월10일 이탈리아의 패션디자이너, 기업가

[미우치아 프라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ncc_clk.top&where=kdic&ie=utf8&query=%EB%AF%B8%EC%9A%B0%EC%B9%98%EC%95%84+%ED%94%84%EB%9D%BC%EB%8B%A4)(Miuccia Prada, 1949.5.10~)는 1949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프라다 창업주의 딸 루이사 프라다(Luisa Prada)와 해군이었던 아버지 루이지 비안키(Luigi Bianchi)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외할아버지인 마리오 프라다는 1913년 ‘프라텔리 프라다(Fratelli Prada)’라는 가죽용품 회사를 창설하여 우수한 품질로 상류층 시장 공략에 성공하였다. 고가의 프라다 가죽제품은 한때 왕가에 납품할 정도로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인지도가 떨어지면서 사업이 난항에 처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마리오 프라다의 뒤를 이어 미우치아의 어머니와 이모가 경영을 맡았으나, 결국 1970년대 후반 회사는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미우치아는 1977년 파산 위기에 놓인 프라다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사명을 띠고 ‘수석 디자이너’로서 가업에 동참하였다.

반려자와 만남

미우치아가 처음 프라다의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그녀는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하였다. 우선,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의 산물이라 여겨졌던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여권 운동에 몸담았던 미우치아에게는 큰 자기 모순이었다. 또한, 본인이 원래 디자인 전공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열등의식에 시달려야 했으므로 오랜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인 파트리치오 베르텔리(Patrizio Bertelli)는 그녀의 잠재적 재능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미우치아가 동업자이자 인생의 반려자인 파트리치오를 처음 만난 것은 1977년 밀라노에서 열린 한 국제 피혁 박람회에서였다. 당시 미우치아는 프라다의 가방 디자인을 복제한 업체의 사장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청년 실업가에게 설득당해 동업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청년 실업가가 바로 파트리치오였다. 2년 후 그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1987년 결혼하였다.

이들은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커다란 시너지를 발휘하였고,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다. 사업에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파트리치오는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미우치아를 독려해 1980년 여성 신발 라인을 시작으로 1988년에는 여성복, 1993년에는 프라다 여성복의 세컨드 라인인 미우 미우(Miu Miu), 1994년에는 프라다 남성복, 1997년에는 언더웨어와 스포츠웨어를 순차적으로 출시하면서 승전고를 울렸다. 특히, 미우 미우는 미우치아의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가상 친구이자 미우치아 자신이 되고 싶었던 이상적 분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미우치아의 이상적 자아가 입고 싶은 디자인을 좀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에 프라다 열풍을 일으킨 이들 커플은 이탈리아인으로는 처음으로 1994년 뉴욕에서 컬렉션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미우치아와 파트리치오는 2006년 <타임(Time)>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 100위에 선정된 바 있다.

액세서리, 가방, 수하물 및 가방, 휴대용 가방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나일론 백

[1979년](https://namu.wiki/w/1979%EB%85%84) 미우치아 프라다는 군용 물품 공장에서 [낙하산](https://namu.wiki/w/%EB%82%99%ED%95%98%EC%82%B0)이나 [텐트](https://namu.wiki/w/%ED%85%90%ED%8A%B8)용으로 사용되던 방수천의 일종인 포코노 나일론을 이용하여 심플한 디자인의 가방을 완성했다. 당시 대부분의 가방은 가죽 소재를 사용해 만드는 것이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패션을 전공하지 않은 미우치아 프라다는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고 검정 색상의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다. 그녀는 이 소재를 활용하여 [1979년](https://namu.wiki/w/1979%EB%85%84)에 [백팩](https://namu.wiki/w/%EB%B0%B1%ED%8C%A9)과 [토트백](https://namu.wiki/w/%ED%86%A0%ED%8A%B8%EB%B0%B1) 세트를 출시했는데, 이들 제품은 전 세계 백화점과 부티크에서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디자인이 단순하면서도 가볍고 실용적이었던 프라다 가방은 정장이나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로 인해 미우치아 프라다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도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미우치아가 처음부터 성공가도를 달렸던 것은 아니다. 그녀가 프라다 경영을 시작한 후 일을 배워갔던 한동안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품질 좋은 가죽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미우치아는 새로운 소재를 물색하게 되었고, 그때 그녀의 눈에 띈 것이 바로 기존의 가죽 트렁크 보호용 소재로 사용하였던 포코노(pocono)였다. 포코노는 조밀하게 제직한 나일론 방수 직물로 주로 낙하산이나 비옷을 포함한 군수품 제작에 사용되었다. 포코노는 가죽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질겨 실용적이었다. 미우치아는 1985년 이 포코노로 제작한 블랙 백팩을 출시하였다. 처음에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으나 곧 새로운 가방의 가치를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패션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꼽는 20세기 잇 백(it bag) 중의 하나인 프라다의 나일론 백이 탄생하였다. 가볍고 물에 젖지 않는 나일론 백은 정장이나 캐쥬얼 의상에 모두 잘 어울렸다. 또한,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면서도 학창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해 주어 나이든 여성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상품의 성공에는 프라다의 삼각형 금속 라벨이 부착된 나일론 백팩을 메고 두오모(Duomo) 광장을 돌아다닌 늘씬한 모델들의 역할도 컸다. 포코노는 다양한 가방 디자인은 물론 파카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다.

의류, 신발, 하이힐, 발목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Miu Miu의 2007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선보인 양말과 구두의 매치. 미우치아는 직접적인 노출보다 착용자로서의 여성이 편안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스타킹 대신 양말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의류, 신발류, 패션, 패션 디자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미우치아의 소녀적 감성을 보여주는 프라다 여성복의 세컨드 라인 Miu Miu의 2010 Pre-fall 컬렉션.

미우치아는 이와 같이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 좌파의 성향을 띠면서도 동시에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프라다가 추구하는 절제미가 바로 그것인데, 이는 ‘프라다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소리치기 보다는 조용히 속삭이기 때문이다’라는 미우치아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미우치아가 생각하는 매력이나 섹시함은 직접적인 노출이나 지나친 장식을 통해 표현하는 유혹이 아닌, 은근한 지적인 아름다움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스타킹 대신 양말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추구하는 이러한 절제와 지성의 미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미우치아의 성장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적 성향을 지녔음에도 그녀는 다양한 예술계 자문위원의 조언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함은 물론, 매 시즌 새로운 콘셉트와 신선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미우치아와 파트리치오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남다르기로 유명하다. 이들은 1993년 프라다 밀라노 아르테(Prada Milano Arte)를 오픈하여 다양한 예술 전시를 유치했는데, 이는 좋은 사회적 호응을 얻어 2년 후 프라다 재단(Prada Foundaton)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확장하기에 이른다. 프라다 재단은 예술 후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진 예술가들을 초대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이면서 밀라노의 예술 중심지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 예로 미우치아는 2005년 텍사스 사막 도시 마파(Marfa)에 프라다 모조 상점인 프라다 마파(Prada Marfa)를 세운 독일 예술가 미카엘 엘름그린(Michael Elmgree)과 엥가르 드래그셋(Ingar Dragset)에게 실제 진열을 위해 프라다 신발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프라다의 이러한 예술 후원은 기업 홍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의 여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우치아는 프라다 재단의 전시나 공연을 기업 홍보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